



손수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예배 모습.



해맑은 미소

가설주택 주민들과의 크리스마스 예배 --- 이와테 ·가마이시시 ---

2012 년 12 월, 일본기독교단은 이와테현 가마이시시, 미야기현 센다이시, 이시노마키시 등 3 곳에서 피해지 주민들과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트폴 도오노가 가마이시시 가설주택에서 드린 [오차코]라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차코]는 피해지의 가설주택 주민들이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로서, 2011 년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곳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4 곳으로 확대되었고, 참가자도 연 2 천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는 4 곳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각각 다른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예배라고 해도 기독교 만의 행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예배에는 참가자 전원이 생전 처음으로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 드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독교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가 실현된 배경에는 [오차코]를 처음부터 담당해주신 사사키 무츠코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사키씨가 1 년 4 개월 동안 쌓아온 주민들과의 신뢰관계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실 사사키씨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올해는 [오차코]가 7 개 장소로 확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오차코]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기독교단이 피해지 주민들을 위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타 복장을 한 이이지마 담당간사

국내모금 달성액
(2013 년 1 월 21 일 현재)
471,041,521 엔

[구원대책본부 담당간사 이이지마 마코토]